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
※ 교 독 문 126(사순절3).....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69장(그 참혹한 십자가에)
예배기도 1부 강은순전도사 2부 박홍만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왜 날 사랑하나”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 경건과 절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요한복음 2:1-11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
기 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407장(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봉 헌 (3 구역)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토)		
사순절21일 특별새벽기도회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딤편5:17-25 말 씀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특별새벽기도회		
“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 씀 / 최세열목사 잘 다스리는 자를 존경하라 주기도문 / 다같이		금요기도회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 음 주 기 도	1부	이경훈전도사	
	헌금위원	3월	박기환 임병호 정선례 방옥남	다 음 주	2부	강항구장로
		4월	심문자 윤승호 나금옥 김영숙	성경봉독	1부	말 은 이
	식당봉사	금주	사라희	다음주	바나바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헌신찬양	금주	3 구역	다음주		한마음기도	
					5 구역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 요한복음 2:1-11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표적은 놀랍게도 공생애의 마지막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로 일으킨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잔치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마침 연회장에는 포도주가 부족해져 자칫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혼례잔치는 곧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은 삶에 있어서 기쁨이 고갈되거나, 크고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사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으로서의 믿음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주님께 알렸고, 하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 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더 이상 주님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믿고 있음을 고백함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들이 현실로 다가옴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문제해결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아 됨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하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2. 순종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잔치에서 섬기고 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고, 이 말에 따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들은 감당하기 힘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대신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준다는 것은 물벼락을 맞을 일이었지만 아무런 불평도, 질문도 없이 행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채우니, 갖다 주었더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인들을 통하지 않고 포도주를 만드신다거나, 처음부터 포도주병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고백했던 사건을 통해 행함이 있는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순종은 ‘그 분의 말씀 안에서’ 행함이 있는 순종입니다.

3. 순종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인들의 순종은 기쁨을 잃어버릴 잔치에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질그릇과 항아리 같은 우리 몸을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죄가 씻어지고,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오직 순조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3월 23일)

제 13 과 이를 위하여(요한복음 18장 28-40절)

(함께 읽을 말씀 : 이사야 60장 9-14절, 빌립보서 3장 17절-4장 1절)

말씀묵상

1.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요18:36). 빌라도에게 잡히신 예수님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소속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영똥한 길에서 헤매기 쉽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손님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요, 방탕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님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신의 공간을 자꾸 늘려가는 부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12:20).

2.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으며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빌라도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18:37). 그러자 진리가 무엇이나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지만,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답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3. 진리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세속적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진리에 대하여 배우며 알아가는 곳입니다. 또한,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인생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나 손님처럼 잠시 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현할까를 고민하고 힘을 쏟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진정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들이자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2. 오늘부터 사순절 21일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온 교우들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새벽5시에, 주일에는 찬양예배시간에 모입니다.
3.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중에는 금요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5. 교우소식
 - * 신공님권사님께서 손주를 보셨습니다.

순종 할 때

예술가와 운동선수의 기량을 보면 힘들거나 어색해 보이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자신의 신체를 철저히 정복했기 때문이다. 위대한 주자(朱者)는 마치 유명인 양 트랙을 유유히 달린다. 피아노의 거장은 마치 건반에 물을 붓듯 연주한다. 숙련된 작가는 마치 말이 말에 꼬리를 물 듯 단어를 구사한다. 그러나 트랙 주자와 피아니스트와 작가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은, 오직 그들이 한때 수없이 연습을 반복하고 자신을 훈련하며 순종을 배웠기 때문이다. 자유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도 똑 같은 자유를 맞출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똑 같은 순종의 본을 따를 것을 명하신다. 무슨 말을 하든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 것은 순종의 강도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 분야를 택하든 성공하게 되어 있다.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토록 꿈꿔 왔던 일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성실한 성품, 읽기와 쓰기의 기본 기술, 친구간의 의리와 충절, 경건한 삶 등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순종할 때 자유가 찾아온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 설교 중 예화

케임브리지 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갈 때까지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시험관이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빨리 답을 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답안지에 한 문장만 쓰고 나왔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 졌더라.”

이 답안으로 최고학점을 받은 그 학생은 천재시인 이었던 바이런 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 졌더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박기환 한옥자 허 웅 김순님 김종천 이영선 김연학 김장숙 김귀례 김범진 김애자 김선주 원혜경 최세열 조성순 방옥남 김인순 홍강의 김성희 박지영 엄동순 신공님 박경자 김상래 함경숙 김흥영 정해진 최임춘 안해숙
- 감사헌금 : 강소윤 정해진 안해숙 김춘자 양석임 조은미 박정일 이종춘 심문자 김혜경 김옥길 여순애 김애자 양희임 김지환 김동현 김선주 원혜경 최세열 조성순 이문순 무명 (심방) 이윤환 김영숙 (일천번제)김동현
- 건축헌금 : 안해숙 마르다 함경숙 김옥길 여순애 허 웅 김순님 박기환 한옥자 홍강의 김성희 방옥남 최세열 조성순 김애자 김귀례 김범진 김종천 이영선
- 비전씨앗 : 배영민 박주한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양석임	5	14,000	145	김귀례	7	강은순	이영선	박정미	8	18,000	100	김성희
2	정정희	김한순	김영숙	7	28,000			8	김순님	오복실	여순애	5	28,000	90	오복실
3	이춘호	함경숙	함경숙	2	15,000	300	박정일	9	김인순	이영란	김인순	2	6,000	100	김미연
4	김기희	최경선	김기희	3	11,000	50		10	장영분	노순영	장영분	3	13,000	100	김애경
5	이문순	원혜경	윤종원	4	23,000			계				42	176,000	1254	
6	류종란	김애자	교 회	3	20,000	369	류종란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12 2014.3.23.

사순절 21일 특별새벽기도회

1. 목 표
오늘처럼 심한 영적 빈곤과 지친 영혼에 새벽을 깨워 여호와와의 행적을 찾고 기도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통해 개인의 영적회복과 가정회복, 교회 회복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교우 전체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응답과 열매를 공부하는 새벽기도학교이며 기도의 축복들을 새벽에 체험하는 집중기도 운동입니다.

2. 기도회 표어
와서 여호와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3. 주제찬양 :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4. 주제성구 :
“와서 여호와와의 행적을 불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다”(시편 46:5,8)

5. 기 간 : 2014년 3월 23일(주일) - 4월 12일(토) 새벽5시
(주일은 찬양예배시간에)

6. 주간별 주제
첫째 주 : 말씀을 찾아서 / 하나님이 찾는 기도자들
둘째 주 : 응답을 찾아서 /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셋째 주 : 열매를 찾아서 /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들

● 구역별로 서로 깨우시고,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한찬희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95-7 403호(010-7607-7233)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